

도내 청년들이 꿈는 청년 정책 1순위 '주거·취업문제 해결'

김윤덕 의원, 청년 간담회 열고 지역 현실 의견 교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시 갑) 의원은 의원사무실에서 '김윤덕의 전북 청년 간담회'를 갖고 청년이 느끼는 전북 현실에 대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 정책 20대가 바라는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전북 청년의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전북의 청년들은 주거문제와 취업문

제를 청년 정책의 1순위로 꼽았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청년 정책과 이해도를 검증하는 TV토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들은 대통령 후보의 인물도 중요하지만, 청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곽동현(28)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어지는 가장 큰 걱정이 주거 문

제다"며 "지역 청년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청년에게 있어서 주거가 최소한의 정주여건 복지에 해당하고, 지역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며 "청년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의 다양한 고민과 문제를 복합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는 청년지원과 신설 등 청년문제 해결 지원 시스템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상철(25)씨는 "대통령 후보의 인물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과 같이 하는 열정이 중요하다"며 "청년정책 남발보다는 이행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따져보는 보다 많은 TV토론을 통한 날카로운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지역 청년 문제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TV 토론 검증뿐만 아니라, 서면 질의 등을 활용한 검증에도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년 6천여 명의 청년이 떠나는 현실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대가 같이 사는 전북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전북 청년 주택 권역별 건설을 통해 청년 주거복지의 획기적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의원사무실에서 김윤덕의 전북 청년 간담회'를 갖고, 청년이 느끼는 전북 현실에 대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안전·보건상 유해 등 현실적 여건 고려 예외 규정

윤준병 의원,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포괄 적용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원칙을 세우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등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예외를 규정하는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포괄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돼 올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

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포괄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현실적 구체적 여건을 고려해 적용 예외를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무엇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단순히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동인권은 한 단계 증진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적용 예외로 돼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모든 사업장의 사



전북도의회 회의탁 의원이 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모색

황의탁 도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전북도의회 회의탁 의원의원(행정자치위원회 무주)이 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무주 구천동이 지난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한때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찾을 만큼 호황을 누렸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 노후화 및 부자유치 실패, 관리 소홀 등 다양한 이유로 특구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전락했다"며 "이에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 사회문화연구부장이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최영기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박정웅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 이순택 전북도청 관광총괄과장, 현형태 전 구천동 관광연합회장, 박문수 구천동 선후회장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탁 의원은 "구천동 관광특구가 지역경제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만큼 지역발전 차원에서라도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며 "정책세미나에서 제안된 의견을 종합해 구천동 관광특구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승리 위해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이미선 남원시의원 이재명 선대위 부대변인에

이미선 남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대 대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이 의원은 현재 전북도당 대변인, 전북도당 K뉴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남원시의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다양한 정책제안과 입법 활동을 펼쳐왔고,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남원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전북도당 대변인으로 수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 부족하지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지방의정연수센터 개소 행정인전부는 8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개발원에서 지방의회 전달 연수기반인 '지방의정연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해철 행정인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인호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지용 전북도지사, 강동화 전북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 지방의회 전달연수기반 신설을 축하했다.

"소상공·자영업자 눈물 닦아주는 추경 돼야"

양경숙 의원 "대출로 버티는 자영업자는 한계치, 상환유예를" "중개은행 이자폭리'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문제점도 언급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이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추가 조치의 필요성, ▲정책금융인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시중은행의 과도한 금리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확대를 강조했다.



양 의원은 경제부총리에게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의 가파른 증가로 부실과 파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리금까지 한꺼번에 갚으려고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추락시키고 등 떠미는 꼴"이라며 "극심한 고

통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미리 자금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추가 조치를 2월 내에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2월말에서 3월초에는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가 계획대로 종료돼야 하는지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한지, 정부 내부적으로 금융권과 협의해서 판단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이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0.25%인 저금리로 코로나

사태 피해기업지원 13조원, 소상공인 지원 6조원 등 총 43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0년 이후 한국은행의 지원금리가 0.25%로 낮아졌음에도 중개은행 금리는 무려 10배가 훨씬 넘는 2.54~3.09%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자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시중은행들은 호황을 누리는데, 피눈물을 흘리며 겨우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즉각 개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말에 한은과 샘플조사 했더니 한은은 0.25%로 공급하지만, 은행에서 비용이나 이익이 추가되면서 말씀하신대로 2.5~3.0% 정도로 공급되고 있었고, 특이한 경우에는 조금 더 고금리로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과다하게 금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은과 점검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호상 기자

"귀중한 문화사료 발간·지원할 것"

송지용 도의회 의장, 가람선생 전집 기증받아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8일 도의회 의정실에서 가람선생 전집 발간행위위원회로부터 '가람선생 전집 10권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가람선생전집행위위원회 위 김익두 위원장파 유하수 간행위원은 이날 송 의장에게 가람선생의 시조와 시, 한시, 수필, 일기 등을 번역 및 정리한 가람선생 전집을 기증했다.

송 의장은 "가람선생은 문화사료



아니라 선생이 살았던 시대의 귀중한 문화사료로 의미가 크다"며 "가람선생전집행위위원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기증받은 전집은 도의회 도서관에 비치해 도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후 "전집이 완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익두 위원장은 "가람선생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조시인이자 국문학자, 선생이 남긴 업적이 방대하고 깊는데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다"며 "제자와 연구자들이 업적을 기리고 문학적 성과를 계승하기 위해 전집을 발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30권 발간을 목표로 우선 10권을 먼저 출간했다"면서 도의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를 야간경제특구로 조성할 것"

임정엽 전 원주군수

임정엽 전 원주군수는 8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전주를 야간경제특구로 조성해 잠재된 소상공인과 자영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 전 군수는 코로나19의 위중증과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계절독감과 유사한 방역체제로 전환하려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야간경제관광특구'로 지정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간경제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밤늦게까지 사람이 발길이 북적이는 전주로 변모되면서 구매력 높은 젊은층과 실버층, 청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전체 연령층의 국내외 관광객이 모여들기 때문에 야간 관광산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야간형 일자리와 관련해 심야



운영이 가능한 야간 운동수단, 야간에도 개방하는 문화시설 운영, 야간 숲, 야간 축제 등 밤시간대를 겨냥한 이벤트형 관광콘텐츠 발굴로 관련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IT 기술을 접목한 야간 보안체계를 비롯해 IT 분야에서부터 AR, VR, 홀로그램까지 미래 첨단 기술이 동원돼 주민소득과 청년 일자리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임 전 군수는 이와 함께 돼지카드 발행규모의 5,000억 원 확대, 공공배달 앱 수수료 제로화,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요금 지원과 배송인력 일자리 지원, 시설 확충도 함께 약속했다. /김윤상 기자

이중선 전 행정관 12일 출판기념회 열어

전주시장 선거 출마예정자인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오는 12일 오후 1~6시 가죽회관 1층에 위치한 라온카페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안도현 시인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영화배우 명계남, 윤건영 국회의원, 박시영 원지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 전 행정관은 "전주의 현대를 연 중앙동에서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구도심의 활성화와 다시 한 번 그때의 영광을 되찾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장소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 /김윤상 기자

